

중고령자의 고용형태별 퇴직과정 유형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홍 백 의** · 김 혜 연**

〔 요약 〕

본 논문은 우리나라 중고령자 퇴직 경로의 대표적인 유형을 찾아내고, 각 유형의 특성과 결정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자료로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이용하였으며, 2006년 현재 45세 이상인 남성들 중 퇴직을 경험한 사람들의 20년 동안의 직업력 자료를 종단적으로 구축하여 집단중심추세모형을 통해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유형화 결과 우리나라 중고령 남성의 퇴직 경로의 유형은 크게 ① 노동시장이탈형, ② 조기퇴직자형 I, ③ 조기퇴직자형 II, ④ 정규퇴직자영자형, ⑤정규퇴직근로자형, ⑥지속자영자형, ⑦지속근로자형, 그리고 ⑧ 장기지속근로자형의 8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들 중 정규퇴직형의 경제적 상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지속자영자형 및 지속근로자형, 장기지속근로자형 등 정규퇴직시점 이후까지 근로를 지속하는 집단의 경우 경제적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생계유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장기지속근로자형에 대한 소득보

* 이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BK21 사업 “세계화 시대의 사회복지리더 양성”(과제번호 인 06A-1704)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부교수(behong@ewha.ac.kr)

*** 서울시복지재단 부연구위원(huwom@hanmail.net)

장 제도 및 연금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또한 조기퇴직자의 경우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반면 노동시장이탈형의 경우 자산규모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비례 보험료 부과 원칙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주제어: 퇴직 경로, 유형화, 집단중심추세모형

1. 서론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두드러진 인구학적 현상이며, 이로 인해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노인인구의 비중이 7%를 넘었고,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14.4%가 노인인구인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권문일 외, 2005; 장지연 외, 2004). 이러한 인구 구조의 고령화는 노인에 대한 공적연금 및 의료비 지출과 맞물려 국가의 재정지출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 1980~1995년까지 65세 노인인구가 약 20% 상승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출규모도 동시에 2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재정지출의 증대는 출산율과 사망률 감소로 인해 당분간은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Gruber & Wise, 2002).

특히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의 시행시기가 서구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노인의 소득보장책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근로소득이 노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공적연금의 발달수준이 매우 낮고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대체로 높기 때문인 것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 노인들의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 수준이었으나 우리나라는 무려 45.7%였다. 반면, 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이 46.3%, 스웨덴이 62.0%로 매우 높은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14.1%에 지나지 않았다. 즉,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구성은 근로소득 및 사적이전의 비중은 매우 높은 반면 공적이전이나 기업연금과 같

은 제도화된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매우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수완·조유미, 2005).

이처럼 노후 소득구성에 있어서 근로소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중·고령자의 경제적 위상은 점차로 악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불안 또한 증대되고 있어 중·고령자의 노후 소득보장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령자의 고용불안 증대는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와 고용형태에서 임시·일용직의 증가 및 조기퇴직 증가 등의 현상을 통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IMF 이전까지는 일본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OECD 회원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55~59세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7년에 84.9%로 매우 높았으나 그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10년 3월 현재 72.4%로 무려 12.5%p가 감소하였다(통계청, KOSIS DB). 또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노인들 중에서도 비교적 직장이 안정적인 상용직의 비중이 감소하고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경제활동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노인들 중에서 임시·일용직의 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에 45.8%에서 IMF 경제위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9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51.6%에 이르고 있다(김수완·김순옥·안상훈, 2005). 마지막으로 인구구조의 노령화 추세와 더불어 노령 인구의 조기퇴직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년연령이 65세 이상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정년을 55세로 정하고 있으며, 1/3이 59세를 정년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 1996). 더욱이 최근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이라는 명분아래 낮은 정년연령까지도 제대로 근로를 하지 못하고 비자발적이고 반강제적 형태의 퇴직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정우·김형수, 1996).

이처럼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조건에서 고령자의 노동지위의 약화로 인한 노후 소득상실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평생근로기간 연장 및 점진적 퇴직제도 등 각각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권문일 외, 2005),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고령자들의 퇴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다. 퇴직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퇴직을 일련의 과정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노동지위에 있어서 단절적 사건으로 인식

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고령자의 노동지위의 변화과정과 퇴직 시의 고용형태의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또한 몇몇 퇴직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퇴직에 임박한 근로자의 주관적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 그쳐 객관적으로 고용형태의 변화 과정이 어떠한지, 이러한 변화과정에 있어 뚜렷하게 구별되는 유형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유형들이 존재한다면 그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종신고용적 의미가 강하여 퇴직을 근로상태에서 비근로상태로의 분절적인 전환으로 인식하여도 큰 무리가 없었으나, IMF 경제 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대됨에 따라 퇴직에 이르는 과정이 보다 다양화되고 그 과정이 분절적 사건이기 보다는 일련의 연속적인 고용상태 변화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령 남성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퇴직에 이르게 되는지 그 대표적인 유형을 찾아내어 각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퇴직 유형이 결정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퇴직과정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 점진적 퇴직제도의 마련 및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을 위한 유용한 정책적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검토

중·고령자의 퇴직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종속변수의 개념, 독립변수에 포함되는 변수의 범위 및 방법론적 접근방식 등 다양한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초점이 퇴직 “과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을 분절적 사건(discrete event)으로 다룬 연구와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다룬 연구로 대별하였다.

먼저, 퇴직을 분절적 사건(discrete event)으로 인식한 연구들은 특정 시점에서의 고용상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상태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Blinder, Gordon, & Wise, 1980; Boaz, 1987; Burkhauser, 1978;

Burtless & Moffitt, 1984, 1986; Gordon & Blinder, 1980; Gustman & Steinmeier, 1984; Quinn, 1977; 권문일, 1996; 권승-황규선, 2004; 김학주-우경숙, 2004; 지은정 외, 2003). 이들 연구들은 고용상태 변화, 즉 퇴직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정함에 있어 노동공급 측면을 주로 고려하는지 혹은 노동수요 측면을 고려하는지에 따라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공급 측면의 연구들은 퇴직을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인의 퇴직 행위는 근로를 할 때에 얻을 수 있는 소득과 퇴직 시 여가 소비로 인한 효용 중에서 더 효용이 높은 쪽을 선택한 결과인 것으로 가정한다(Hurd & Boskin, 1984; Quinn & Burkhauser, 1994).

이들 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인적자원과 경제적 유인, 예를 들어, 공적연금이나 사적 연금 급여가 노인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이들 변수들이 퇴직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노동 공급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특정 집단들이 겪게 되는 차별이나 사회적 제약조건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노동수요 측면을 고려한 연구들은 중·고령자들의 퇴직 행태에 미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나이, 교육 및 인종 등에 따라 노후 노동시장에서의 근로활동 기회가 어떻게 제약받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 연구들은 교육수준과 기술의 숙련정도가 낮은 중·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훨씬 이른 시기에 퇴직하여야 하는 구조적 제약이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Ruhm, 1990; Mitchell, Levine & Pozzebon, 1988).

중·고령자의 퇴직행태와 관련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도 퇴직을 분절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령층의 취업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권문일, 1996; 김학주-우경숙, 2004; 이철희, 1999; 지은정 외, 2003). 예를 들어, 권승-황규선(2004)의 연구는 노년층의 퇴직 결정에 성(性)과 거주지가 미치는 요인을, 김학주-우경숙(2004)의 연구는 중·고령층이 재취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퇴직을 분절적 사건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퇴직이 진행되는 전반적인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고용형태의 점진적 이행과정에 대해 고찰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다음으로 퇴직을 분절적 사건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일어나는 과정으로 인식한 연구들이 있다. 즉, 장기간에 걸쳐 변화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가는 과정으로서 퇴직

을 바라보는 것이다(Atchley, 1982; Beehr, 1986; Cahill, K.E., Giandrea, M.D., Quinn, J.F., 2006; Dahl, S., Nilsen, O., & Vaage, K., 2000; Ekerdt & DeViney, 1993; Flippen, C. & Tienda, M., 2000; Halpin, B., & Chan, T.W., 1998; Han, S., & Moen, P., 1999; Hayward, M.D., Grady, W.R., & McLaughlin, S.D., 1988; Mutchler, J.E., Burr, J.A., Pienta, A.M., Massagli, M.P., 1997; 박경숙, 2003; 장지연, 2003; 한준·장지연, 2000). 이들 연구들은 퇴직을 분절적 사건이기 보다는 고용상태의 변화에 즈음하여 개인의 태도, 가치, 관점 및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퇴직과정에서 나타나는 직무만족도의 변화나 가족 내 역할 변화 및 자아존중감의 변화와 같은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퇴직을 일련의 연속적 과정으로 간주한 국내연구로는 박경숙(2003)과 홍백의(2006)의 연구가 있다. 박경숙(2003)의 연구는 퇴직을 분절적 사건이기 보다는 일련의 과정으로 인식한 최초의 국내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퇴직과정을 유형화하기 보다는 매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이처럼 집단의 평균적 구성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고용형태의 변화과정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홍백의(2006)의 연구는 개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가치의 변화를 추적한 점은 의의가 있으나 객관적인 고용상태의 변화 자체를 고찰하지 않고 주관적 직무만족도의 변화를 고찰한 점에서 직접적으로 퇴직과정에 관한 연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최근 들어 고령자의 퇴직 전 고용상태의 다양한 변화와 점진적 퇴직 경향의 증가 등을 고려해 보면, 퇴직은 분절적 사건이기 보다는 일련의 연속적 고용상태의 변화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의 객관적 직종변화를 통해 퇴직유형을 찾아보고자 하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대표적인 퇴직 유형은 어떤 형태들이 있는가? 둘째, 대표적 퇴직 유형들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이 특정 퇴직 유형에 속하게 될 가능성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이들 질문에 대한 해답을 통해 중·고령자의 퇴직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고령자의 퇴직 정책 마련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분석 자료로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이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전국의 45세 이상(1962년 이전 출생)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중년기의 주된 일자리의 변동에 초점을 둔 조사로서 표집틀로는 제주도과 섬지역 그리고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를 이용하였다. 조사결과 총 999개 조사구에서 6,171가구에 거주하는 10,254명의 가구원을 최종적으로 면접 조사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다른 패널조사에 비해 과거노동경력을 나타내는 직업력 조사의 자료가 풍부하고 정확하여 본 연구를 위해 가장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2) 분석대상 및 자료처리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6년 현재 45세 이상인 남자 중에서 퇴직을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과거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50세에서 70세까지의 고용상태를 종단자료로 구축하여 퇴직유형화에 사용하였다. 개인의 퇴직연령을 기준으로 퇴직 전 고용상태는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퇴직 후의 고용상태는 모두 퇴직 상태로 처리하였으며 퇴직과 무직의 고용상태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을 이용한 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해 <식 1>과 같이 종속 변수를 연령의 2차 함수까지 설정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유의한 유형의 구분 기준은 Log-likelihood에 기초한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의 차이로 판단하였다.

$$\text{<식 1> } Y^{*j} = \beta_0^j + \beta_1^j \text{age} + \beta_2^j \text{age}^2 + \epsilon$$

다음으로, 분류된 유형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개인의 인적자본 변수, 노동시장

변수, 가족관련 변수 등을 고려하였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내에서 각 유형들이 어떠한 형태를 보이는지 그리고 이들의 경제적 상태는 어떠한지 비교·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퇴직 과정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퇴직 후 경제적 상태를 비교한 후 이들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을 이용하였는데, 집단중심추세모형은 매년 반복적으로 측정된 종단자료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유형화하는데 유용한 통계적 방법으로 전체 모집단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른 형태의 변화과정을 경험하는 몇 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text{<식 2> } P(Y_i) = \sum_j \pi_j P^j(Y_i)$$

그러므로 위의 <식 2>에 제시된 것처럼, 종속변수의 확률밀도함수는 특정 집단에 소속될 확률과 특정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의 종속변수 확률밀도함수의 곱의 총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특정 집단 구성원의 종속변수는 매 측정 시점마다 상호 독립적임을 가정하기 때문에, <식 3>에 제시된 것처럼 특정 집단 구성원의 종속변수의 확률밀도함수는 매 시점마다 해당 확률밀도함수의 단순한 곱에 지나지 않게 된다.

$$\text{<식 3> } P^j(Y_i) = \prod_t p^{jt}(y_{it})$$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식 2>를 추정함에 있어 집단의 구성원이 될 확률, π_j , 는 다범주로짓함수(multinomial logit function)로 추정되며, 매 조사시점의 종속변수인 확률밀도함수, $p^{jt}(y_{it})$ 는 종속변수의 속성에 따라 다른 분포를 가정하고 추정하게 된다. 종속변수의 속성이 단위기간 내 발생한 횟수를 나타낼 경우는 포아송분포(Poisson distribution), 심리척도일 경우에는 절단정규분포(censored normal distribution), 그리고 이분형자료일 경우에는 이분형로짓분포(binary logit distribution)를 이용하여 추정하게

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고용형태로서 ①상용직, ②임시·일용직, ③자영업자, ④무직 및 ⑤퇴직의 5개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비록 변수의 속성은 범주형 변수이지만 고용지위를 나타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열변수로 간주하여 퇴직의 경우 0점에서, 상용직 4점까지 부과하여 절단정규분포로 추정하였다(Jones & Nagin, 2006). 유형화의 전반적인 과정은 1집단모형에서 시작하여 최적의 모형이 도출될 때까지 점차로 집단수를 늘려감으로써 집단수를 결정하였으며, 이때 최적모형 선택의 기준으로는 BIC를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20년 동안의 고용형태의 구성변화와 소득구성변화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각 유형에 속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직업력 자료가 있는 45세 이상의 은퇴 한 남성으로 최종적으로는 1,147명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그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분석대상의 평균 연령은 69.2세로 이중에서 1930년대에 출생한 사람이 46.12%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1940년대에 출생한 사람이 29.29%, 193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18.66% 이었다. 그리고 195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전체의 5.93%로 적은 수의 사람만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의 37.35%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였으며, 중학교 졸업자는 16.84%, 고등학교 졸업자는 27.57%, 그리고 대학교 졸업자는 18.24%로 대졸자의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결혼상태는 조사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인 89.27%가 혼인 중인 상태이었으며, 사별한 경우는 8.2%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구규모를 살펴보면 2인 가구가 전체의 54.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인 단독가구는 4.8%에 불과하였으며, 자녀와 동거하는 3인 혹은 3인 이상의 가구가 그 나머

지를 차지하고 있었다.

노동시장특성으로서 분석대상의 첫 직종을 살펴보면 약 28%가 상시 혹은 임시·일용직의 근로자로 노동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비중의 25.54%는 자영업으로 첫 직장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 인구도 11.86%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은퇴 사유를 살펴보면 정년으로 인한 퇴직이 37.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본인 혹은 배우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가 34.59%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더 많은 여가활동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어 퇴직한 경우도 10.4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7.64%는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은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의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ADL 및 IADL로 질문하였는데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2.77점이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쁜 편 혹은 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사람이 “좋은 편 혹은 매우 좋음”으로 응답한 사람에 비해 다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DL이나 IADL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는 건강상의 객관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의 비중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ADL 지수의 경우는 7가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응답자의 90% 이었으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IADL의 경우에는 ADL에 비해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의 비중은 다소 낮은 74.72%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값	빈도	%
출생 시기	1930년 이전	214	18.66
	1930년대	529	46.12
	1940년대	336	29.29
	1950년 이후	68	5.93
	평균	69.2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	428	37.35
	중학교 졸	193	16.84
	고등학교 졸	316	27.57
	대학교 졸	209	18.24

결혼상태	혼인 중	1023	89.27
	별거/이혼	26	2.27
	사별/실종	94	8.20
	결혼한적 없음	3	0.26
가구규모	1인	55	4.80
	2인	626	54.58
	3인	205	17.87
	4인	111	9.68
	5인 이상	150	13.07
	평균	2.80	
첫 직종	비경제활동	136	11.86
	무직	395	34.44
	자영업	293	25.54
	임시/일용직	75	6.54
	정규직	248	21.62
은퇴사유	여가	120	10.48
	건강	396	34.59
	정년	427	37.29
	기타	202	17.64
건강상태	매우 좋음	34	2.96
	좋은 편	291	25.37
	보통	351	30.60
	나쁜 편	321	27.99
	매우 나쁨	150	13.08
	평균	2.77	
ADL 지수	0	1039	90.58
	1~2	37	3.22
	3이상	71	6.18
	평균	0.39	
IADL 지수	0	857	74.72
	1~2	128	11.16
	3이상	162	14.13
	평균	1.08	

2) 퇴직 유형

여기서는 조사대상자의 퇴직 유형을 찾기 위해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퇴직 유형을 찾기 위해 모든 조사대상자의 생애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자별로 50세에서 70세까지 20년 동안 직업력 변화자료를 구축하였다. 집단중심추세모형에서 모형의 선택은 집단수를 한 개에서 시작하여 점차 그 수를 늘려가면서 변화되는 모형의 적합성의 변화정도에 기초하여 최적의 모형을 찾았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 모형의 선택을 위해 Jones et. al.(2001)은 제시한 기준을 이용하였는데 그들이 제시한 기준은 [표 2]에서 제시된 바처럼 복잡모형과 단순모형의 BIC 차이의 자연로그값을 기준으로 하여 집단의 수가 많은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다.

[표 2] 모형적합도와 집단분포

$\ln\Delta BIC$	H_0 (원모형)를 기각하는 정도
0-2	받아들일 수 없음
2-6	긍정적임
6-10	강한 긍정
10 초과	매우 강한 긍정

[표 3]은 집단의 수를 늘려감에 따라 변화되는 BIC 값과 집단 수 변화에 따른 BIC값 차이에 대한 자연로그값을 나타내고 있다. 집단의 수가 9개가 될 때까지 BIC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ln\Delta BIC$ 값이 6 이상인 8집단 유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한편, 최적모형의 선택기준으로 한 집단의 구성비가 5% 이상인 것을 이용하기도 하므로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7집단 모형 혹은 9집단 모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수를 늘려감으로써 집단이 분기되는 과정을 동시에 살펴보았으며, 퇴직 유형별 특성 및 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8집단 모형을 최적모형으로 선택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집단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퇴직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집단 모형은 모든 근로자는 퇴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2집단 모형에서는 정규퇴직 이전 퇴직자와 정규퇴직 이후 퇴직자로 크게 조상대상자가 대별된다. 이후 3집단 모형에서는 조기퇴직자와 정규퇴직자 그리고 지속근로자로 3개의 집단으로 대별되었으며, 이들 유형에 속하는 조사대상자의 비중은 각각 25.9%, 47.8%, 26.4%이었다. 한편 4집단으로 구분될 경우에는 조기퇴직자 집단이 무직자와 조기퇴직자 집단으로 세분화되었으며 5집단 모형에서는 근로자집단의 정규 퇴직자 집단이 더욱 세분되어 정규 퇴직자 집단과 지속근로형 집단으로 세분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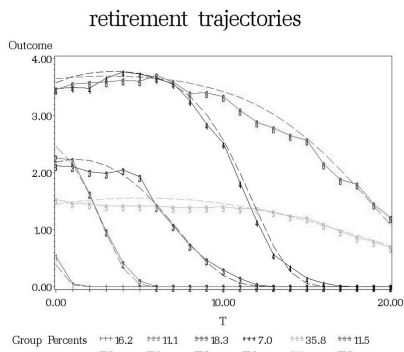
[표 3] 모형별 BIC값 변화와 퇴직 유형별 비중

모형	BIC	ln Δ BIC	노동시장이탈형	조기퇴직형I	조기퇴직형II	자영업퇴직형		근로자퇴직형			
						정규	지속	정규	지속	장기	
1집단	-35526.6					100.0%					
2집단	-29318.7	8.733		43.4		56.6					
3집단	-27668.5	7.408		조기퇴직(25.9%)		정규퇴직(47.8%)		지속근로(26.4%)			
4집단	-25254.5	7.789	23.8	24.1		37.2		15.0			
5집단	-24556.0	6.548	21.6	18.6		32.8		13.8	13.3		
6집단	-23889.8	6.501	16.2	11.1	18.3	35.8		7.0	11.5		
7집단	-23363.2	6.266	14.5	11.9	13.4	13.1	29.7	6.4	11.0		
8집단	-22807.2	6.320	15.9	10.8	13.0	13.2	29.3	5.3	9.1	3.2	
9집단	-22474.3	5.807	13.7	8.3	7.0	11.8	11.8	29.2	4.1	8.0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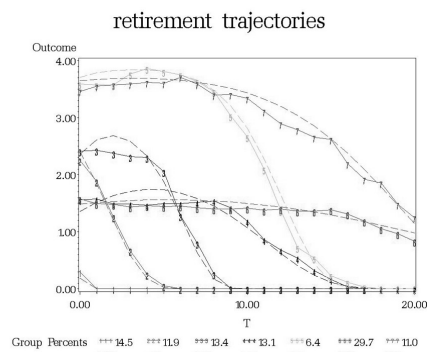
다음으로, 6집단 모형에서는 이후부터는 집단 유형의 변화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표 3]의 집단 구성의 비중 이외에도 그림을 통해 각 집단의 퇴직 유형을 살펴보았다. 6집단 모형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퇴직 유형이 ① 노동시장이탈형, ② 조기퇴직형 I(52세 전후 퇴직자), ③ 조기퇴직형 II(55세 전후 퇴직자), ④ 정규근로자퇴직형, ⑤ 지속자영자퇴직형, 그리고 ⑥ 지속근로자퇴직형으로 크게 대별되었다. 다음으로 7집단 모형은 [그림 2]에 나타난 것처럼 ① 노동시장이탈형, ② 조기퇴직형 I(52세 전후 퇴직자), ③ 조기퇴직형 II(55세 전후 퇴직자), ④ 정규근로자 퇴직형(⑤), ⑥ 지속근로자 퇴직형(⑦)은 6집단 모형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⑤ 지속자영자퇴직형이 ④ 정규퇴

직자영업자형과 ⑥ 지속자영업자퇴직형으로 분화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최종 모형으로 선택된 8집단 모형에서는 7집단 모형에서의 ④ 정규근로자퇴직형, 그리고 ⑦ 지속근로자퇴직형이 보다 세분화되어 ⑤ 정규근로자퇴직형, ⑦ 62세 전후 근로자퇴직형과 ⑧ 장기근로자퇴직형으로 세분화되었다. 끝으로 비록 본 연구에서 최적모형으로 선택되지는 않았으나 9집단 모형에서는 60세를 전후해 퇴직하는 자영업자 집단이 더욱 세분화되어 56세를 전후해 퇴직하는 집단과 60세를 전후해 퇴직하는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집단수를 더 늘려 10집단 모형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모형의 수렴(convergence)이 일어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8집단 유형의 배정 결과 배정사후확률이 모든 유형에 걸쳐 97% 이상의 정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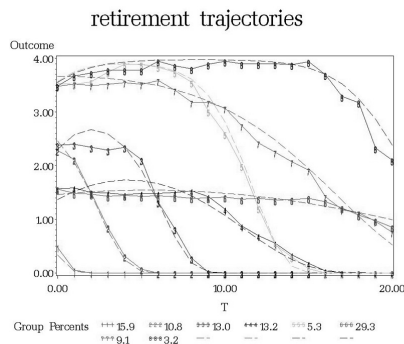
[그림 1] 6집단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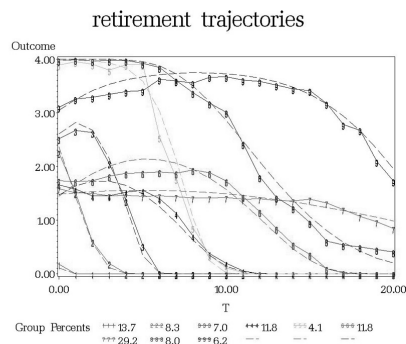
[그림 2] 7집단 유형



[그림 3] 8집단 유형



[그림 4] 9집단 유형



다음으로 각 모형의 집단 수 변화에 따른 퇴직 유형의 변화를 노동시장에서의 직종과 이에 미치는 연령의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4] 퇴직유형에 대한 연령의 효과

모형	추정모수	6집단모형	7집단모형	8집단모형	9집단모형
1.노동시장 이탈형	β_0	-0.18591	-0.69606***	-0.22756	-0.9388***
	β_1	0.05834	-5.43756	0.0759	-4.07920
	β_2	-1.64264	-0.15021	-1.53167	-0.96722
2.조기퇴직 자형	β_0	2.50411***	2.44135***	2.49955***	2.39595***
	β_1	-0.20807	-0.54293***	-0.32968**	-0.96757***
	β_2	-0.12475***	-0.06305**	-0.10358***	-0.04782
3.조기퇴직 자형 II	β_0	2.20654***	2.39465***	2.32529***	2.66145***
	β_1	0.09308***	0.37421***	0.39661***	0.45003***
	β_2	-0.03868***	-0.09593***	-0.0961***	-0.2047***
4.정규자영 퇴직자형	β_0		1.28543***	1.30893***	1.42549***
	β_1		0.20439***	0.19135***	0.232***
	β_2		-0.02389***	-0.02271***	-0.04567***
5.정규근로 퇴직자형	β_0	4.08569***	4.36549***	4.01641***	5.7404***
	β_1	0.31021***	0.27569***	0.4922***	0.08355
	β_2	-0.04557***	-0.04212***	-0.06039***	-0.08565***
6.지속자영 자형	β_0	1.38085***	1.43215***	1.41571***	1.39837***
	β_1	0.04951***	0.03348***	0.03293***	0.28522***
	β_2	-0.00484***	-0.0032***	-0.00305***	-0.02714***
	β_0				1.4444***
	β_1				0.03019***
	β_2				-0.00299***
7.지속근로 자형	β_0	4.24956***	4.22042***	4.21985***	8.27969***
	β_1	0.07425***	0.07291***	0.00158	-0.62574***
	β_2	-0.01197***	-0.01163***	-0.01022***	0.00916***
8.장기지속 근로자형	β_0			3.98013***	3.18427***
	β_1			0.41937***	0.29596***
	β_2			-0.02488***	-0.01788***

주: ** p<.01; *** p<.001

먼저, “노동시장이탈형”은 모형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집단으로 50세를 전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노동시장에 진입을 한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바라볼 수 있다. “조기퇴직자형 I과 II”는 절편값으로 볼 때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유사하게 혼재되어 있는 집단이며 정규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노동시장을 떠나는 집단이다. 한편, 조기퇴직을 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서 자영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6집단 모형에서 “6.지속자영자형”에 속한 집단이 7집단 모형에서는 “4.정규자영퇴직자형”과 “6.지속자영자형”으로 세분되어 나옴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의 절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7집단 모형에서 새롭게 분화되어 나온 “4.정규자영퇴직자형”의 절편이 “6.지속자영자형”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6.지속자영자형”은 8집단 모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다가 9집단 모형에서 다시 세분화되어 2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자의 퇴직형태는 “7.지속근로자형”이 8집단 모형에서 “7.지속근로자형”과 “8.장기지속근로자형”으로 분화되었으며 이러한 분화도 이들 집단의 절편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3) 퇴직 유형별 특성

여기서는 본 연구의 최적모형으로 선택한 8집단 모형에서 분류된 8개 집단의 특성을 [표 5]에 제시된 연령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직종변화와 [표 6]의 퇴직유형별 소득구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노동시장에서의 직종별 비중 및 연령에 따른 구성의 변화를 보면, 「노동시장이탈형」에 속한 사람의 72.34%가 이미 50세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소수 자영업자와 상시근로를 하고 있던 사람들도 51세에는 모두 직장이 없거나 혹은 노동시장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조기퇴직자형 I」을 살펴보면 이 퇴직유형에는 50세에 자영업에 종사했던 사람과 상시직 근로자 및 무직자가 거의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약 절반 정도가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대체로 53세를 전후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조기퇴직형 II」의 경우에도 「조기퇴직형 I」과 유사하게 자영업 종사자와 상시직 근로자 그리고 무직의 비중이 대체로 30% 정도로

유사하였으나 퇴직 시점이 「조기퇴직형 I」에 비해 다소 늦어 56세를 전후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집단은 60세를 전후하여 퇴직을 하는 점에서는 유사하였으나 초기 직종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정규퇴직자영자형」의 경우에는 50세 당시 직종구성이 자영업자가 30.92%, 무직의 비중이 58.55%인 반면에 상시직 근로자나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 5.26%에 지나지 않아서 정규퇴직을 하는 자영업 종사자의 퇴직 유형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정규퇴직근로자형」 집단의 구성은 이와 반대로 50세 당시 상시직 근로자가 74.19%로 전체의 3/4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12.9%인 반면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은 4.84%에 지나지 않아 피고용인으로 취업한 근로자들의 퇴직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60세를 지나서도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하는 집단은 「지속자영자형」, 「지속근로자형」 그리고 「장기지속근로자형」의 세 가지 유형이었다. 「지속자영자형」의 경우는 「정규퇴직자영자형」과 유사하게 50세 당시 직종이 자영업인 경우가 38.62%, 무직이 54.1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시직과 임시·일용직의 구성은 4.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경우 대략 65세 이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속근로자형」과 「장기지속근로자형」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은 10% 내외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속근로자형」의 경우는 50세 당시 직종이 상시직이었던 경우는 62세를 전후하여 전체의 절반이 퇴직을 하는 반면 임시·일용직의 경우는 69세에 이르러 절반가량이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기지속근로자형”의 경우는 50세 당시 직종이 상시직인 경우가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70세에 도달하였어도 약 절반 정도가 여전히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집단이었다.

다음으로 각 유형별 소득구성을 통해 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개인의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개인총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노동시장이탈형」의 개인총소득이 1,219만원으로 8개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총소득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다른 집단에 비해 자산소득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집단의 자산소득은 다른 집단에 비해 거의 4~5배 정도 높아 일찍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이 건강상의 이유와 같은 노동에 부적절한 요인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보유자산이

높아서 애초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거나 진입하였더라도 일찍이 노동시장을 퇴장하는 집단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개인총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규모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났는데 「노동시장이탈형」 집단의 개인총자산과 부동산 자산 소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총자산 규모도 여덟 개 집단 중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공적이전 소득과 그 하위 항목인 연금액을 살펴보면,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정규퇴직자영자형」과 「정규퇴직근로자형」의 연금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조기퇴직형 I」과 「조기퇴직형 II」의 경우는 정규퇴직형에 비해 연금소득이 다소 낮았다. 한편, 「지속자영자형」이나 「지속근로자형」의 경우에는 「정규퇴직자영자형」이나 「정규퇴직근로자형」에 비해 더 오랜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액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볼 때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이나 직종 등이 정규퇴직자에 비해 더 열악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장기지속근로자형」의 경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들의 연금수준은 정규퇴직자형에 비해 약 1/3~1/4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유형별 고용형태 구성 변화

(단위: %)

유형	고용 형태	사례 수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
노동 시장 이탈형	비경제	136	72,34	94,68	100																		
	무직	25	13,3	5,32																			
	자영업	12	6,38																				
	임시/일용	3	1,6																				
	상용	12	6,38																				
	계	188																					
조기 퇴직 자형 I	비경제				20,17	48,74	77,31	93,28	100														
	무직	43	36,13	38,66	37,82	27,73	15,13	6,72															
	자영업	36	30,25	27,73	21,85	14,29	6,72																
	임시/일용	10	8,4	8,4	5,88	4,2	0,84																
	상용	30	25,21	25,21	14,29	5,04																	
	계	119																					
조기 퇴직 자형 II	비경제							7,28	31,13	50,99	80,13	99,34	100										
	무직	45	29,8	29,14	31,13	31,79	30,46	31,79	32,45	26,49	13,25	0,66											
	자영업	52	34,44	33,77	33,77	35,76	35,1	31,13	21,85	16,56	5,96												
	임시/일용	7	4,64	6,62	5,96	5,96	4,64	3,97	2,65	0,66	0,66												
	상용	47	31,13	30,46	29,14	26,49	29,8	25,83	11,92	5,3													
	계	151																					

된다.

[표 6] 퇴직유형별 소득구성

	노동시장 이탈형	조기 퇴직형 I	조기 퇴직형 II	정규자영 퇴직자형	정규근로 퇴직자형	지속자영 자형	지속근로 자형	장기지속 근로자형
소득								
개인총소득	1219.2	857.6	971.1	787.0	927.2	771.0	843.3	593.9
근로소득	168.0	211.3	161.9	81.6	30.5	77.8	106.3	148.6
자산소득	504.5	129.5	164.4	75.6	120.5	100.7	154.4	137.7
공적이전	226.9	309.3	309.3	407.9	511.3	308.6	241.3	140.5
연금	191.0	244.9	238.2	374.4	451.4	267.7	206.3	102.8
사회보장	35.9	64.4	71.1	33.6	59.9	40.9	35.0	37.7
개인연금	9.0	3.3	2.1	2.9	0.0	20.0	29.8	25.9
사적이전	257.7	201.7	326.2	211.1	264.9	232.6	311.6	141.1
기타	53.1	2.5	7.2	7.9	0.0	31.2	0.0	0.0
가구총소득	1475.4	1349.7	1397.4	1259.6	1129.9	1327.3	1329.8	1833.0
자산								
개인총자산	16253.5	13544.3	11788.7	15436.4	12090.2	14214.7	16451.8	13879.8
부동산자산	14778.2	11455.6	10024.0	14525.2	11089.8	12786.6	14600.9	12883.8
금융자산	1334.8	1920.3	1611.2	795.9	811.8	1274.6	1714.5	905.5
보험자산	28.5	82.0	38.2	7.5	59.5	13.0	24.7	20.5
사업체자산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자산	140.4	168.3	153.5	115.3	188.5	153.6	136.4	90.5
가구총자산	26809.8	16161.1	17943.4	18381.0	14870.3	20312.2	19968.1	19916.7
부채								
개인총부채	24210.0	14675.7	14443.0	17117.9	14541.3	17516.1	19055.0	17115.7
가구총부채	2439.8	1329.8	1978.1	1497.3	2232.3	2496.5	1031.6	3770.5
순자산								
개인순자산	14948.2	12650.7	10321.5	14391.7	10841.8	12649.0	15632.1	12066.0
가구순자산	24370.0	14831.3	15965.4	16883.7	12638.0	17815.7	18936.5	16146.1
가족지원액	16.6	39.3	68.7	25.5	4.0	48.8	85.7	16.3

4) 퇴직 유형 결정요인

여기서는 각 퇴직유형에 속하게 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범주

로짓(multinomial logit)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준집단은 8번째 퇴직유형인 「장기지속 근로자형」으로 하였으며 [표 7]은 장기지속근로자형에 비해 다른 7개의 범주에 속하게 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영향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퇴직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는 가구규모, 건강수준, 교육수준, 출생동년배, 배우자 유무와 50세 당시 직종을 고려하였다.

[표 7] 퇴직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퇴직유형 노동시장 이탈형	조기 퇴직자형 I	조기 퇴직자형 II	정규자영퇴 직자형	정규 근로 퇴직자형	지속 자영자형	지속 근로자형
가구규모	.878	.852	.852	.788	.848	.936	.878
건강수준	1.091	1.166	.981	1.129	1.047	1.021	.964
교육수준							
대졸							
초졸	.576	2.063	.761	1.268	.345	.755	1.129
중졸	.269	.627	.314	.544	.180*	.455	.475
고졸	.191*	.358	.361	.493	.146**	.334	.369
출생 cohort							
1950년이후							
1930년이전	.949	.667	1.268	2.451	1.965	1.441	2.136
1930년대	4.067+	3.669+	4.019*	11.385**	8.829*	5.386*	5.966*
1940년대	1.123	2.506	2.375	5.677*	7.097*	2.951	7.154*
배우자유무							
있음							
없음	1.949	.919	.791	1.492	1.890	1.020	.968
50세 직종							
상용직							
비경제	7.3+E11	1.927	1.666	9.971	.690	15.542	.705
무직	18.160***	11.702***	8.326**	94.06***	.868	145.06***	.519
자영업	7.989**	9.702***	8.421***	48.73**	.456	92.661***	1.146
임시/일용직	4.554	6.098*	2.675	18.430**	3.113	21.644***	6.820*

주 1) -2LL=2458.722, $\chi^2=1161.25***$, Cox & Snell $R^2=0.637$

주 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모형에 포함된 예측 요인 중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수준과 출생 cohort 그리고 50세 당시의 직종이었다. 먼저, 교육수준의 영향을 살펴보면 대졸자에 비해 고졸자는 「노동시장이탈형」에 속할 가능성(odds ratio)이 약 81%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자에 비해 중졸자나 고졸자의 경우에도 정규근로퇴직자형에 속할 가능성이 각 82%, 85.4%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를 하는 「장기지속근로자형」에 비해 정규근로퇴직자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특이한 점은 대졸자가 고졸자에 비해 「장기지속근로자형」보다 「노동시장이탈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인데, 이를 통해 소득구성에서 논의한 것처럼 「노동시장이탈형」이 충분한 자산이 있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출생 cohort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95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에 비해 1930년대에 태어난 집단은 모든 퇴직 형태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정규자영퇴직자형」이나 「정규근로퇴직자형」에 속할 가능성은 무려 약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 간 차이는 1940년대에 태어난 집단에서는 다소 약하게 드러났다. 비록 1940년대에 출생한 집단이 「정규자영퇴직자형」이나 「정규근로퇴직자형」에 속할 가능성이 1950년 이후에 출생한 집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6배 정도 높긴 하지만 1930년대에 출생한 집단에 비해 그 크기는 다소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930년 이전에 출생한 집단의 경우에는 1950년 이후에 출생한 집단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산업자본주의의 미발달로 인해 자본주의적 시장노동에 진출이 미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50세 당시의 직종이 퇴직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50세 당시 상용직에 종사한 사람에 비해 무직이나 자영업에 종사한 사람은 「정규근로퇴직자형」과 「지속근로자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50세 당시에 무직이나 자영업에 종사한 사람은 상용직에 종사한 사람에 비해 「노동시장이탈형」, 「조기퇴직형」 그리고 「정규자영퇴직자형」 및 「지속자영퇴직자형」에 속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무직과 자영업은 앞의 퇴직유형의 집단구성 분석에서와 동일하게 퇴직유형의 결정요인에서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자영업과 무직 간에는 서로 빈번하게 직종 변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50세 당시의 직종이 임시·일용직인 경우는 상용직 종사자에 비해 「조기퇴직형 I」, 「정규자영퇴직자형」, 「지속자영자형」 및 「지속근로자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임시·일용직의 경우는 상용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지위로 인해 조기퇴직이나 자영업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고, 자영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장기 노동을 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45세 이상 은퇴근로자의 퇴직유형을 밝혀내고 각 퇴직유형별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 유형 결정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45세 이상 은퇴자의 퇴직유형은 크게 8개의 유형으로 ① 노동시장이탈형, ② 조기퇴직자형 I, ③ 조기퇴직자형 II, ④ 정규퇴직자영자형, ⑤ 정규퇴직근로자형, ⑥ 지속자영자형, ⑦ 지속근로자형, 그리고 ⑧ 장기지속근로자형으로 대별되었다. 여기서 노동시장이탈형은 본래적 자산이나 경제적 지위가 높아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특징을 보여주었으며, 두개의 조기퇴직자형은 퇴직 시기에 따라 구분되며 이들은 근로자와 자영자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규퇴직자는 자영자형과 근로자형으로 구분되어 나타났으며 이들의 경제적 상태는 노동시장에 참여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자영자형이나 지속근로자형의 경우는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시기는 정규퇴직자에 비해 다소 길지만 경제적 상태는 이들에 비해 다소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장기지속근로자형의 경제적 상태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계유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장기지속근로자형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 집단은 노동시장에서 근로활동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낮으며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로 가족이나 친지로부터의 사적이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가족 내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구성원과

함께 동거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음으로 조기퇴직자의 경제적 상태가 정규퇴직자에 비해 열악하고 이들의 연금급여 수준도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들의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정책적 고려대상에서 우선순위는 다소 떨어지지만, 이들에 대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중·고령 조기퇴직자를 위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고령자를 위한 적합한 일자리 발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기퇴직자들이 퇴직 전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종이 개발된다면 조기퇴직자들의 재취업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속근로를 하는 집단의 경우도 연금급여의 수준이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아 시장 내 낮은 경제적 지위가 노후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한 연금급여 뿐만 아니라 기초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노인의 기초소득보장을 위해 최근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수급액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수급대상의 보편성에 비해 소득보장을 위한 적정 급여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수급대상 확대를 유예하더라도 적정 수급액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노동시장이탈형의 경제적 상태가 다른 퇴직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원칙을 고수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사회보장 운영 원칙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자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직장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 직장피부양자로 편입될 수 있다. 반면, 장기지속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로 경제적 지위는 노동시장이탈형에 속하는 사람에 비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정책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분석대상의 평균 연령이 69.2세로 매우 높아 이들의 퇴직유형이 정규교육이 일반화된 현재 근로세대의 퇴직유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근로세대의 퇴직유형을 보다 심도

깊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세대별로 나누어 퇴직과정을 추가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퇴직유형에 기초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현재 노동시장에 있는 젊은 층들의 퇴직유형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은 종속변수의 성격과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종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하여 그 성격상 범주형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모형 추정에 있어 절단정규분포를 가정하였다. 이로 인해 실제에 있어서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을 직업위세도에 있어 서열적 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열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편의(bias)가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이는 집단추세모형 분석방법이 갖고 있는 현재의 한계로 인한 것이므로 이후 발전된 분석방법이 개발되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권문일, 1996, "고령자의 퇴직 및 퇴직 후 근로행태 결정 요인", 『사회복지연구』, 제8권. pp.41-67.
- 권문일 외, 2005,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 권승·황규선, 2004, "노년층의 은퇴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거주지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4권 제3호, pp.69-90.
- 김수완·김순옥·안상훈, 2005,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연구』, NPS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05.
- 김수완·조유미, 2005, 『우리나라 노인가구 소득원의 실태분석 : 가구소비실태조사(2000)을 중심으로』, NPS 국민연금연구원 Working Paper 2005-01.
- 김학주·우경숙, 2004,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4권 제2호, pp.97-110.
- 박경숙, 2003,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과정: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 『노동정책연구』 제3권 제1호, pp.103-140.
- 이미진·김미혜·홍백의, 2007, 남성고령자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3권 제1호, pp.1-26.
- 이정우·김형수, 1996, "노령근로자 조기퇴직의 폐해와 개선방향", 『한국노년학』 제16권 제1호, pp.83-95.
- 이철희, 1999, "한국의 노인노동: 노년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 1955-1995",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논집』 제38권 제4호, pp.339-368.
- 장지연, 2003, "중·고령자의 경력이동: 대안적 은퇴과정으로서의 근로시간 단축과 자영업 창업의 비중", 『한국사회학』 제37권 제2호, pp.95-122.
- 장지연 외, 2004,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I)』, 한국노동연구원.
- 지은정·김동배·노인철·이익섭, 2003, "공무원 연금이 가입자의 퇴직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사회보장연구』 제19권 제2호, pp.1-33.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1996, 『노동경제연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 한준·장지연, 2000, "정규/비정규 전환을 중심으로 본 취업력(Work History)과 생애과정(Life-Course)", 『노동경제논집』 제23권, pp.33-53.
- 홍백의, 2006, "중·고령자의 퇴직 전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30권, pp.353-376.
- 통계청 <http://www.Kosis.kr>
- Atchley, R. C., 1982, "Retirement: leaving the World of work",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64, pp.120-131.

- Beehr, T. A., 1986, "The process of retirement : A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investigation", *Personnel Psychology* 39, pp.31-55.
- Blinder, A., R. Gordon, & Wise, D., 1980, "Reconsidering the Work Disincentive Effects of Social Security", *National Tax Journal* 33, December.
- Boaz, R. F., 1987, *Labor market behavior of older workers approaching retirement: A summary of the evidence from the 1970s*, In C.W. Meyer (Ed.), *Social Security: A Critique of radical reform proposals*, Lexington Books.
- Burkhauser, R. V., 1978, "A time-series analysis on Social Security and its effect on the market work of men at younger ag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4), pp.701-715.
- Burtless, G., & Moffitt, R. A., 1984, *The effect of Social Security benefits on the labor supply of the aged*, In H.J. Aaron & G. Burtless (Eds.), *Retirement and Economic Behavior*, The Brookings Institution.
- Burtless, G., & Moffitt, R. A., 1986, Social Security, "Earnings Test, and Age at Retirement", *Public Finance Quarterly* 14(1), pp.3-27.
- Cahill, K. E., Giandrea, M. D., Quinn, J. F., 2006, *A Micro-level Analysis of Recent Increases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among Older Workers*, Working Papers, Bureau of Labor Statistics.
- Dahl, S., Nilsen, O., & Vaage, K., 2000, "Work or Retirement? Exit Routes for Norwegian Elderly", *Applied Economics* 32(14), pp.1865-1876.
- Ekerdt, D. J. & DeViney, S., 1993, "Evidence for a Preretirement Process among Older Male Worker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8, S35-S43.
- Flippen, C. & Tienda, M., 2000, "Pathways to Retirement: Patterns of Labor Market Exit by Race, Hispanic Origin, and Sex",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5B(1), S14-S27.
- Gordon, R. H., & Blinder, A. S., 1980, "Market wages, reservation wages, and retirement decision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4, pp.277-308.
- Gruber, J. & Wise, D., 2002,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Micro Estimation*, NBER working pap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 Gustman, A. L. & Steinmeier, T. L., 1984, "Modeling the Retirement Process for Policy Evaluation and Research", *Monthly Labor Review* 107(7), pp.26-33.
- Halpin, Brendan & Chan, Tak Wing., 1998, "Class Careers as Sequences: An Optimal Matching Analysis of Work-life Histor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4(2), pp.111-130.
- Han, Shin-Kap, & Moen, Phyllis., 1999, "Clocking out: Temporal patterning of retirement",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pp.191-236.
- Hayward, M. D., Grady, W. R. & McLaughlin, S. D., 1988, "Changes in the Retirement Process among Older Men in the United States: 1972-1980", *Demography* 25, pp.271-286.
- Hurd, M. D., & Boskin, M. J., 1984, "The Effect of Social Security on Retirement in the Early 1970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4(4).
- Jones, B. L., & Nagin, D. S., 2006, *Advances in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and a SAS procedure for estimating them*, NIMH working paper.
- Jones, B., Nagin, D., & Roeder., 2001, "A SAS procedure based on mixture models for estima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3), pp.374-393.
- Mitchell, O. S., Levine, P. B., & Pozzebon, S., 1988, "Retirement differences by industry and occupation", *The Gerontologist* 28, pp.545-551.
- Mutchler, J. E., Burr, J. A., Pienta, A. M., & Massagli, M. P., 1997, "Pathway to Labor Force Exit: Work Transitions and Work Instability",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2B(1), S4-S12.
- Quinn, J. F., 1978, "Job characteristics and early retirement", *Industrial Relations* 17(3), pp.315-323.
- Quinn, J. F., & Burkhauser, R. V., 1994, *Retirement and labor force behavior of the elderly*, In L. Martin & S. Preston (Eds.), *Demography of Aging*, Washington, DC : National Academy Press.
- Ruhm, C. J., 1990, *Career job, bridge employment, and retirement*, In P.B. Doeringer (Ed.), *Bridges to Retirement: Older Workers in a Changing Labor Market*, Ithaca, NY: Industrial Labor Relations Press.

A study on the type of retirement processes and its determinants for the aged

Hong, BaegEui* · Kim, HyeYeon**

It is urgently needed to implement social welfare policies to supplement insufficient income for the elderly because of low benefits from public pension and social assistance in Korea.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presentative type of retirement process and to find influential factors on retirement process. This study used lifetime job records for 20years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for males aged 45 and more in 2006. Using the group-based trajectory method, this study identified eight types of retirement patterns : ① never-worked, ② early retirees I, ③ early retirees II, ④ normally retired self-employees, ⑤ normally retired workers, ⑥ keep-working self-employees, ⑦ keep-working workers, and ⑧ never-stop working. The economic status of the normally retired workers is the highest among these eight groups, while those of early retirees and keep-working groups are worse than those of normal retirees. Thus,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benefit levels of public pension and social assistance programs for income maintenance of keep-working groups. In addition, various labor market policies are needed for early retirees to redeem works.

key words: : retirement process, patterns of retirement, group-based trajectory model

◆ 2010.3.1. 접수 / 2010.4.14. 1차수정 / 2010.4.28. 게재확정

*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behong@ewha.ac.kr)

** Associate Principal Researcher, Seoul Welfare Foundation(huwom@hanmail.net)